산업 · 정책연구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9. 11.

부산상공회의소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박성익(경성대)

Ⅰ. 서론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지고 있으며, 경제·군사·안보·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대립 관계는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에서 비롯됨.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미국은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대중 무역을 규제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WTO 제소, 중국의 대미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계획에 보복관세 부과계획 발표로 맞대응
- 2019년 10월 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로 small deal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강제기술 이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 세계 경기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

○ 부산의 수출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서 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5%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산지역 제조업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존재

- 먼저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
- 그 다음으로 부산지역의 수출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무역 제재 이후 부산지역 수출의 동향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
- 아울러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수출현황 및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
-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

○ 지금까지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

Ⅱ. 미 · 중 무역분쟁 현황 및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1. 미・중간 무역분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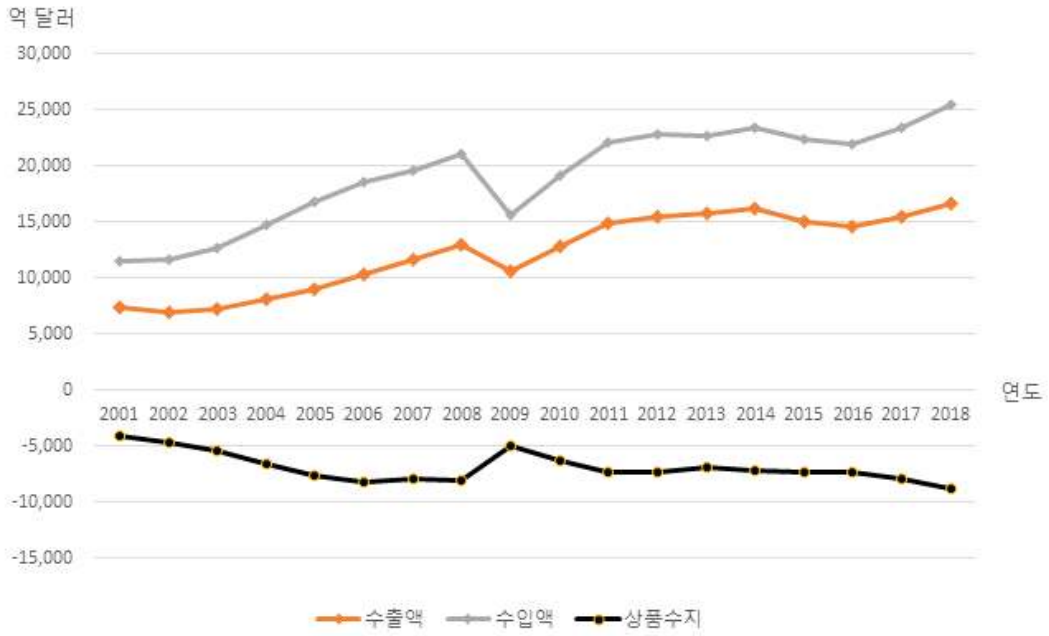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지고 있으며, 경제 · 군사 · 안보 ·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면에서 자국의 패권적 리더십과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인식하고 우려해 왔음
- 특히, ‘중국제조 2025’에서 드러났듯이,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2049년까지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세계 제조업 제1강국으로의 부상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
- 또한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경우 총 64개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회랑이 구축됨.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총인구와 경제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63%(약 44억 명), 29%(약 21조)를 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은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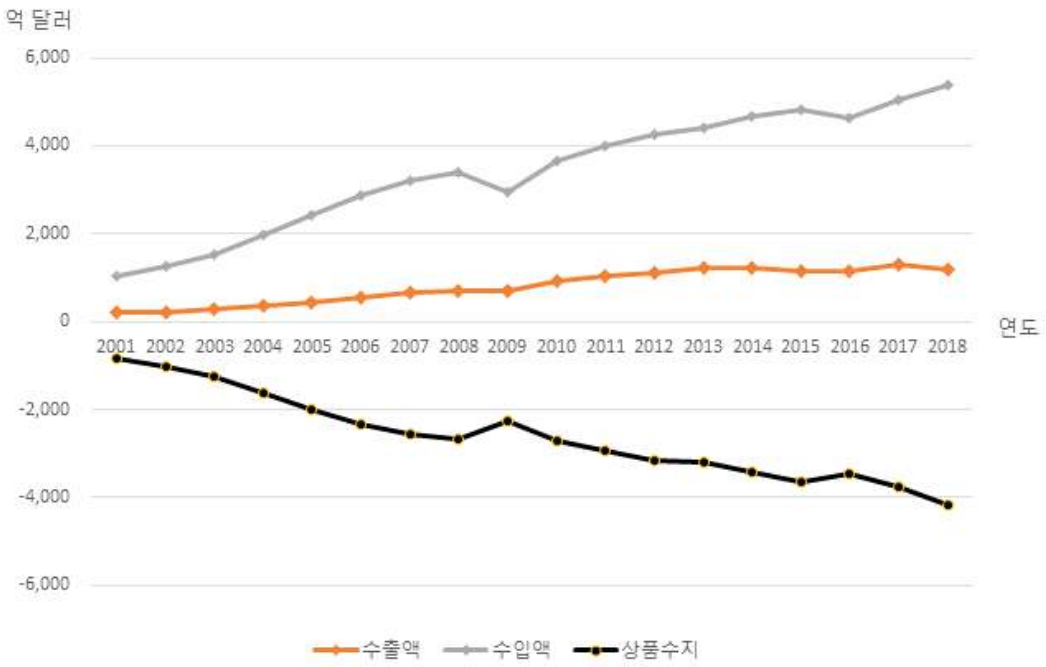
○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적자에서 기인

- [그림 1]은 2001년 이후 미국의 상품 수출, 수입 및 상품수지를 나타낸 것임. 동 기간 중 미국의 상품 수지는 다소간의 부침이 있지만, 2018년 현재 약 8,800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그림 1] 미국 상품 수출, 수입 및 상품수지 추이

- [그림 2]는 2001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 수입 및 상품수지를 나타낸 것임. 동 기간 중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지도 연도별로 다소 변동은 있지만, 2001년 약 830억 달러에서 2018년 현재 약 4,200억 달러의 적자로 크게 늘어난 상황



[그림 2]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 수입 및 상품수지 추이

- 미국의 전체 상품수지 적자 중에서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9.6%로 최고치를 도달한 후, 다소 감소하여 2018년 현재 47.7%에 달하고 있음

<표 2> 미국의 전체 및 대중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미국의 전체 수출입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B/A)
	수출액	수입액	상품수지 (A)	수출	수입	상품수지 (B)	
2001	7,310	11,420	-4,109	192	1,023	-830	20.2
2002	6,933	11,635	-4,703	221	1,252	-1,031	21.9
2003	7,237	12,594	-5,357	284	1,524	-1,240	23.1
2004	8,165	14,697	-6,531	347	1,967	-1,620	24.8
2005	9,044	16,709	-7,666	418	2,435	-2,016	26.3
2006	10,371	18,551	-8,180	552	2,878	-2,325	28.4
2007	11,627	19,537	-7,910	652	3,215	-2,563	32.4
2008	13,001	21,001	-8,000	715	3,378	-2,663	33.3
2009	10,569	15,579	-5,009	696	2,964	-2,268	45.3

연도	미국의 전체 수출입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B/A)
	수출액	수입액	상품수지 (A)	수출	수입	상품수지 (B)	
2010	12,785	19,139	-6,354	919	3,650	-2,730	43.0
2011	14,803	22,081	-7,278	1,040	3,994	-2,954	40.6
2012	15,457	22,753	-7,296	1,105	4,256	-3,151	43.2
2013	15,789	22,669	-6,880	1,220	4,404	-3,184	46.3
2014	16,234	23,452	-7,217	1,240	4,667	-3,426	47.5
2015	15,046	22,417	-7,371	1,162	4,819	-3,657	49.6
2016	14,537	21,892	-7,355	1,158	4,628	-3,470	47.2
2017	15,467	23,429	-7,962	1,304	5,056	-3,752	47.1
2018	16,641	25,427	-8,787	1,203	5,395	-4,192	47.7

○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 USTR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기술혁신 등 분야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함
- USTR은 중국 정부의 위반 행위를 4개 분야로 구분.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및 지재권 이전을 위해 美기업에 대한 각종 압력 행사, 중국 기업과의 라이센스 협상 시 미국 기업의 협상 능력을 제한, 신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시하고 부당하게 촉진함으로써 시장에 개입,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 데이터망에 무단 침입을 지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
-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

2. 미・중간 무역분쟁 진행상황

○ 미국은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대중 무역을 규제

-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강제 기술이전 요구 조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으로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계획에 보복관세 부과계획 발표로 맞대응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양자 협의에 실패하였을 경우 미국이 상대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

○ 세 차례에 걸친 미중 간의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하여 7월 6일 예정대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340억 달러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5월 17일~18일 워싱턴에서의 2차 무역협상이 타결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에서의 법 개정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결국 협상 타결 번복

- 이후 9월까지 미국은 500억 달러 수입품에 25%(7월 6일 1차 818개 품목 340억 달러, 8월 23일 2차 279개 품목 160억 달러),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는 10%(9월 24일 3차 6,030개 품목)의 관세 부과. 중국은 500억 달러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6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는 5%와 10%의 차등 관세 부과

○ 미중 정상, 2018년 12월 G20 회담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협상은 실패하여 상호 추가관세 부과 움직임이 가속화

- 2019년 1월 ~ 5월 중 8차례에 걸친 협상이 실패하여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 인상 및 3천 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미국은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

- 미국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 소비재는 12월 15일)부터 10% 추가관세 부과 발표

-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여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포치(破七)’를 기록하자 미 재무부는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양국 간의 무

역전쟁은 통화전쟁으로 확산

☞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 정부 조달 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음

○ 2019년 10월 10일~11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로 small deal 합의에 도달

- 미국은 10월 15일 대중 수입 2,5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상향(25%→30%)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400억~500억 달러) 및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합의
- 올해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스몰딜에 대한 합의문 서명, 추가 합의사항 발표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강제기술 이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표 3> 미중 무역전쟁 주요 일지

날짜	내용
2017. 8. 1	트럼프,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강제 기술이전 요구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
2018. 3. 1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중국산 철강(25%), 알루미늄(10%)에 관세 부과
3. 22	트럼프,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응으로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WTO 제소, 중국의 대미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5. 3 ~ 6. 2	미중 3차례 협상
7. 6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7. 10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 부과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8. 23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9. 24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중국,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5, 10, 20%) 부과
12. 1	미중 정상, G20 회담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2019. 1.7~5.1	미중 8차례 협상

날짜	내용
2019. 5. 5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및 3천 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5. 10	미국,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
8. 1	미국,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 소비재는 12월 15일)부터 10% 추가관세 부과 발표
8. 5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무역분쟁이 통화전쟁으로 확산
8. 23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3,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정에 따라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10. 14	중국이 미국 농산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관세 인상 계획을 취소하기로 하는 스몰 딜(small deal)에 합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강제기술 이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11. 16~17(예정)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APEC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스몰딜에 대한 합의문 서명, 추가 합의 사항 발표 가능성 존재

<표 4> 미국 및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진행 과정

미국의 대 중국 추가 관세 부과 진행 과정	‘중국 제조 2025’ 관련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2018년 7~8월) → 10% 추가관세 부과(2018년 9월, 2,000억 달러) →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2019.5.10) →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 소비재는 12월 15일)부터 10% 추가관세 부과 발표(2019.8.1) →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3,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정(2019년 9월 1일 및 12월 15일)에 따라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2019.8.23)
중국의 대 미국 추가 관세 부과 진행 과정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 부과(2018년 7~8월) → 5~10%의 2단계 차등적인 추가관세 부과(600억 달러, 2018년 9월) →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5%, 10%, 20%, 25%(4단계)로 상향 조정(2019.6.1) → 750억 달러(5,078개 품목)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는 12월 15일)부터 5% 또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추가관세를 부과

3. 미·중간 무역분쟁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전면적인 관세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 타격은 불

가피

- 양평섭 외(2019)는 미·중 간 이미 진행된 추가관세 인상조치(1~3차 조치)와 2019년 9월 이후 관세 인상조치(4차 조치 포함)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 직접효과는 미·중 간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감소(직접효과)를 의미하여, 간접효과는 미·중의 성장둔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를 의미

○ 양평섭 외(2019)는 한국의 대미 수출은 5~9억 달러, 한국의 대중 수출은 25~4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발효 예정조치(4차 조치 포함)를 모두 감안할 경우 직접효과는 1억 4,000만 달러, 간접효과는 7억 7,000만 달러로 총 효과는 9억 1,000만 달러로 추산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규모는 4차 조치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직접효과는 26억 2,000만 달러, 간접효과는 16억 9,000만 달러로 총 효과는 43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표 5> 미국 및 중국의 추가관세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액 추정

(단위 : 억 달러)

구분	1~3차 조치 효과 (기발효 조치)			1~4차 조치 효과 (발효예정 조치 포함)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 (수출 감소율)	1.0 (0.1%)	4.3 (0.6%)	5.3 (0.8%)	1.4 (0.2%)	7.7 (1.1%)	9.1 (1.3%)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 (수출 감소율)	13.4 (0.9%)	11.4 (0.8%)	24.8 (1.6%)	26.2 (1.7%)	16.9 (1.1%)	43.1 (2.8%)

주: ( ) 안의 숫자는 2017~18년 평균 수출 대비 감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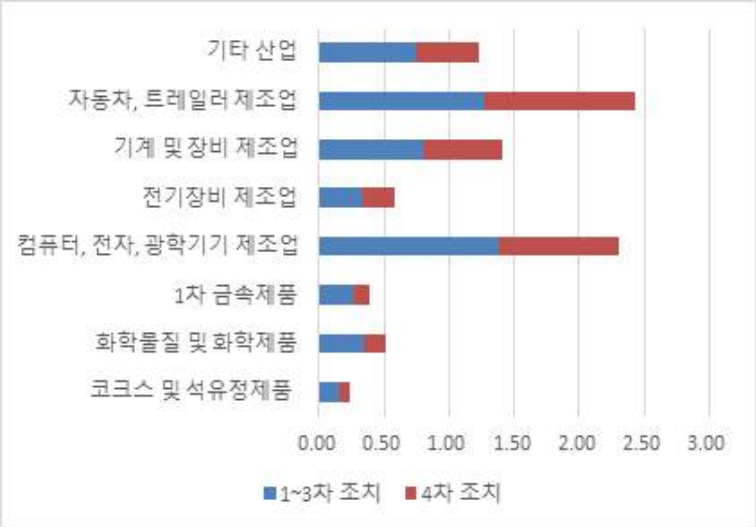
출처 : 양평섭 외(2019)

○ 양평섭 외(2019)는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 감소폭은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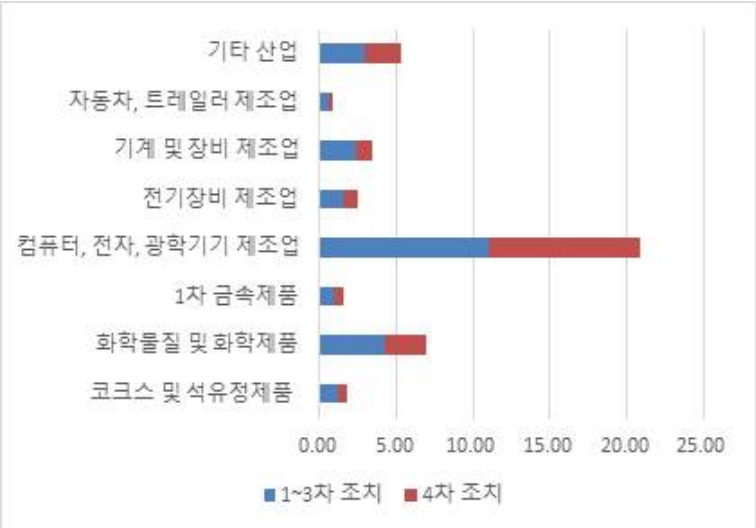
- 중국의 대미국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자동차·트레일러 및 컴퓨터·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기계, 전기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순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특히, 자동차·트레일러 및 컴퓨터·전자·광학기기의 대미 수출 감소는 1~3차 조치를 고려

할 경우 2억 6,000만 달러, 4차 조치를 포함할 경우 4억 7,000만 달러로 대미 수출 감소의 50%가 이 두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분야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이외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업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특히 1~3차 조치로 인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의 수출 감소는 11억 달러, 4차 조치까지 포함하는 경우 21억 달러로 대중 수출 감소의 40% 이상을 차지



[그림 3]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추정



[그림 4]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추정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미, 대중 수출감소 효과와는 달리,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하여 한국이 미국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존재

- 문병기 외(2019)의 분석에 의하면, 2019년 1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수입 증가율은 -24.7%를 기록한 반면, 한국산은 20.5%가 증가.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고 한국산은 증가함.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2018년 상반기 16.1%에서 2019년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동 기간 한국산은 3.4%에서 4.1%로 0.7%p 상승함.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하락과 한국산의 상승이 뚜렷함
- 미중 무역분쟁 속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타 국가산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미국(-36.9%)과 베트남(-20.2%) 수입이 가장 크게 줄었고 한국은 -5.9%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음. 중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중간재 수요 감소 및 경기둔화 영향이 무역전환 효과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임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수출 경합도와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됨. 문병기 외(2019)에 의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이,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투자 및 소비 둔화, 금융 불안 및 이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Ⅲ.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부산지역 수출 영향 분석

1. 부산지역 수출 동향

가. 부산지역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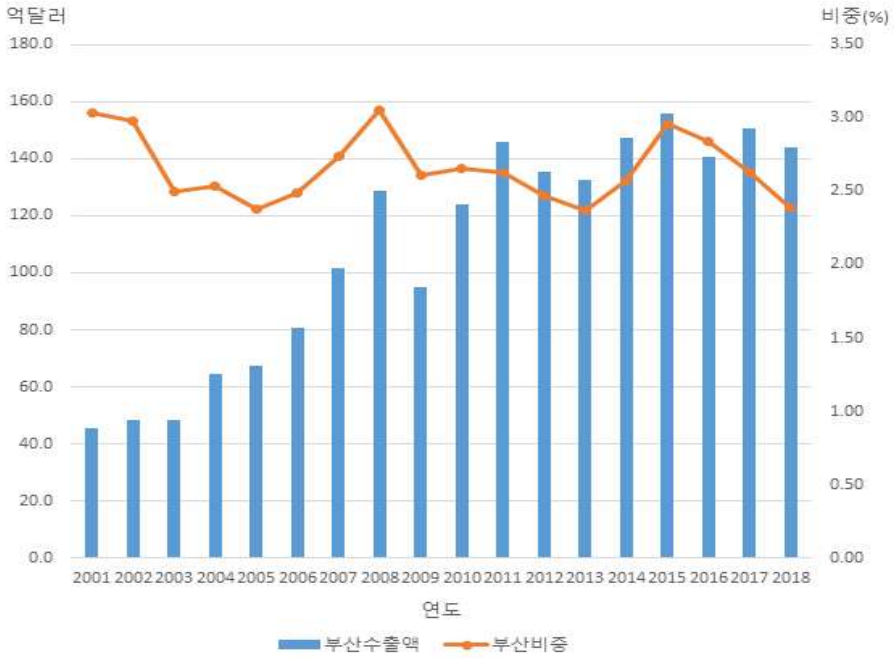
○ 부산의 수출은 연도별로 부침이 있지만, 2001년 45.7억 달러에서 2018년 144.1억 달러로 증가

- 200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금융위기 시기, 그리고 2015년 말 유가 하락 때에는 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동 기간 중 부산 수출의 전국대비 비중은 2.38% ~ 3.05% 사이에서 변동. 2018년 현재는 2.38% 수준에 불과

<표 6> 부산의 수출 및 전국 대비 비중

(단위 : 억 달러, %)

연도	부산		전국		부산비중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2001	45.7		150,439		3.04
2002	48.4	5.9	162,471	8.0	2.98
2003	48.4	0.2	193,817	19.3	2.50
2004	64.3	32.8	253,845	31.0	2.53
2005	67.6	5.1	284,419	12.0	2.38
2006	80.9	19.6	325,465	14.4	2.49
2007	101.6	25.6	371,489	14.1	2.73
2008	128.6	26.6	422,007	13.6	3.05
2009	95.0	-26.2	363,534	-13.9	2.61
2010	123.7	30.3	466,384	28.3	2.65
2011	145.6	17.7	555,214	19.0	2.62
2012	135.6	-6.9	547,870	-1.3	2.47
2013	132.6	-2.2	559,632	2.1	2.37
2014	147.0	10.8	572,665	2.3	2.57
2015	155.8	6.0	526,757	-8.0	2.96
2016	140.7	-9.7	495,426	-5.9	2.84
2017	150.6	7.0	573,694	15.8	2.63
2018	144.1	-4.3	604,860	5.4	2.38



[그림 5] 부산의 수출액 및 전국대비 비중

○ 부산의 2018년 10대 수출품목 구성은 전국의 10대 수출 품목 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HS 코드 2-digit을 기준으로 측정할 때, 부산의 품목별 비중은 전국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전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19.3%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3.3%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품목은 전부 제조업 제품임. 그리고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2%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의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으로 30.5%임. 상위 10개 품목은 전부 제조업 제품이고 이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1%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부산 및 전국의 수출 품목 구성(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억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부산		HS 코드	품목	전국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수출액 (억 달러)	비중
1	87	철도 또는 철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782	19.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846	30.5
2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633	18.3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777	12.8
3	72	철강	1,694	11.8	87	철도 또는 철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12	10.1
4	73	철강의 제품	1,363	9.5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480	7.9
5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35	7.9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49	5.8
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607	4.2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78	4.6
7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75	3.3	29	유기화학품	253	4.2
8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409	2.8	72	철강	247	4.1
9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	330	2.3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203	3.4
10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266	1.8	73	철강의 제품	105	1.7
1~10위품목 합계	-	-	11,694	81.2	-	-	5,150	85.1
전체 합계	-	-	14,407	100.0	-	-	6,049	100.0

○ 부산의 2018년 수출의 지역별 구성은 전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위 10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전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의 수출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4.5%이고 그 다음이 중국 10.5%임. 그리고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26.8%이고 그 다음이 미국 12.0%임.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의 수출이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미국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가 부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양평섭의 연구(2019)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대미 수출 감소폭이 대중 수출 감소폭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작을 수 있음

<표 8> 부산 및 전국의 수출의 지역별 구성(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억 달러, %)

순위	국가	부산		국가	전국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수출액 (억 달러)	비중
1	미국	3,530	24.5	중국	1,621	26.8
2	중국	1,519	10.5	미국	727	12.0
3	일본	1,354	9.4	베트남	486	8.0
4	베트남	1,183	8.2	홍콩	460	7.6
5	멕시코	568	3.9	일본	305	5.0
6	인도네시아	393	2.7	대만	208	3.4
7	프랑스	392	2.7	인도(인디아)	156	2.6
8	인도(인디아)	328	2.3	필리핀	120	2.0
9	태국	297	2.1	싱가포르	118	2.0
10	독일	272	1.9	멕시코	115	1.9
1~10위국가 합계	-	9,836	68.3	-	4,316	71.4
전체 합계	-	14,407	100.0	-	6,049	100.0

○ 양평섭 외(2019)의 추정치에 의한 부산 수출의 감소액은 52.5백만 달러 수준으로 부산 전체 수출 14,407백만 달러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양평섭 외(2019)에 의하면, 미국의 1차~3차 관세부과 조치에 따라 전국의 대미 수출이 0.8% 감소하고 대중 수출은 1.6% 감소함. 이 비율대로 부산의 수출이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대미 수출은 28.2백만 달러, 대중 수출은

24.3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부산의 대미와 대중 수출은 총 52.5백만 달러 감소로 부산 전체 수출 14,407백만 달러 대비 0.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감소율은 전국 대비 낮은 것임

- 동 효과에는 제3국 수출의 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출 감소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대미 및 대중 수출에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간접효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역전환효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볼 수 있음

나. 미 · 중 무역분쟁 이후 부산 수출 품목별 동향

○ <표 8>은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부산 전체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정리한 것임. 동 기간 중 수출의 변동은 여러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HS 6 digit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7월부터 2019년 2/4분기까지 부산 전체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수출액 합계는 2018년 3/4분기 1,318.2백만 달러에서 2019년 2/4분기 1,525.9백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수준에서 다소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부 음수로 나타나 수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율의 절대값은 점차 감소하여 하락률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HS 6 digit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0개 품목 중에 3개를 제외한 17개 품목이 미국의 1~3차 대중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해당 품목이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라면, 대중 수출은 감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1위 품목(870323, 자동차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의 해당 기간 중 수출은 1,451.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2,436.6백만 달러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1위 품목을 제외하면 동 기간 중 수출은 4,227.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4,287.8백만 달러와 비

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18년 3/4분기와 4/4분기는 음수 값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 1/4분기와 2/4분기는 양수 값으로 나타남

- 부산의 수출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 수출이 변동되는 1위 품목(또는 좀 더 넓게 HS 87 품목)을 제외한 상위 20개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부산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짐. 이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대미 및 대중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입 증감 변동을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함

<표 9> 부산의 전체 수출 중 상위 20개 품목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백만 달러)

순위		제재 해당 여부	HS code	전체 수출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1		1	870323	-41.8	-33.4	-50.8	-34.9
2		3	840999	15.2	20.1	41.6	56.5
3			721070	-7.2	-7.8	-2.8	4.5
4		1	880330	-2.3	13.2	19.7	5.8
5		3	731210	-9.8	-0.7	-1.9	-7.5
6		1	870332	-74.6	-78.4	-58.0	-29.8
7		1	890190	-51.4	-16.7	19.4	-50.7
8		1	850131	25.6	39.0	12.5	20.6
9		3	730793	22.0	27.1	28.1	4.7
10			721061	4.6	-15.4	-5.7	3.3
11		3	732690	-24.8	10.1	-11.9	24.5
12		3	330499	95.3	111.0	154.9	80.3
13		3	870899	-27.8	9.9	-0.7	-14.7
14		1	841221	73.3	60.5	23.0	-3.7
15		1	847990	-7.0	-9.3	9.4	37.8
16		1	391990	-8.1	-12.3	-24.4	30.7
17			030487	-9.9	8.4	-4.5	-9.1
18		3	392690	96.6	129.4	114.4	72.4
19		3	848180	-10.1	-5.8	11.0	-9.1
20		3	600537	-4.3	4.7	-6.4	-13.6
상위 20개	합계	-	-	1,318.2	1,409.1	1,425.9	1,525.9
	기간 중 수출대비 비중	-	-	40.0	40.9	42.9	42.9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21.8	-14.9	-16.5	-9.0
1위	합계	-	-	949.6	997.4	1,117.1	1,163.4

순위		제재 해당 여부	HS code	전체 수출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제외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	-9.7	-3.8	3.3	4.0

주) 제재 해당여부에 1, 2 3으로 표기한 것은 HS 6 digit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미국의 1차(2018년 7월 6일), 2차(2018년 8월 23일) 및 3차(2018년 9월 24일) 대중 보복관세 부과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낸 것임. 관세 부과여부는 미국의 HS 8 digit 해당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6 digit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표 9>는 2018년 7월 이후 부산의 대미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수출동향을 정리한 것임. HS 6 digit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7월부터 2019년 2/4분기까지 부산 대미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수출액 합계는 2018년 3/4분기 587.8백만 달러에서 2019년 2/4분기 595.0백만 달러로 변동해 왔으며, 대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부 음수로 나타나 수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HS 6 digit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0개 품목 중에 3개를 제외한 17개 품목이 미국의 1~3차 대중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1위 품목(870323, 자동차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의 해당 기간 중 수출은 1,319.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2,006.9백만 달러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1위 품목을 제외하면 동 기간 중 수출은 1,082.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830.9백만 달러와 비교하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부산의 전체 수출 중 상위 20개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 수출이 변동되는 1위 품목(또는 좀 더 넓게 HS 87 품목)을 제외할 때,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부산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추정이 가능함

<표 10> 부산의 대미 수출 중 상위 20개 품목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백만 달러)

순위		제재 해당 여부	HS code	대미 수출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1		1	870323	-32.2	-25.5	-48.5	-29.9
2		1	880330	-0.6	21.6	30.7	9.6
3		1	841221	98.9	77.4	30.9	-1.0
4		1	850131	10.1	34.5	5.5	20.0
5			721070	-13.7	37.4	37.2	40.3
6			721061	-6.3	-27.7	16.5	12.2
7		3	730793	46.9	166.9	160.1	46.1
8		3	392690	370.0	633.7	260.7	71.6
9		3	848310	-25.4	57.5	63.5	14.4
10		3	840999	6.0	22.8	6.5	6.2
11		3	731210	27.5	13.5	-8.2	-32.6
12		1	848210	35.1	13.5	48.6	7.7
13		1	730890	801.4	480.1	125.9	50.6
14			640419	94.6	44.7	7.8	-38.4
15		3	848180	81.7	33.8	24.1	31.8
16		1	847990	106.0	105.7	100.1	205.3
17		3	840991	-	-	292.3	30.3
18		3	870829	-23.0	25.8	20.1	-1.7
19		3	730791	8.8	92.1	56.4	-17.1
20		3	870899	-5.2	15.0	0.8	-33.8
상위 20개	합계	-	-	587.8	656.6	564.0	595.0
	기간 중 수출 대비 비중	-	-	75.1	74.2	74.8	74.6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15.1	-7.4	-24.4	-14.1
1위 제외	합계	-	-	258.0	261.7	285.2	277.5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	24.6	46.1	39.3	15.7

주) 제재 해당여부에 1, 2 3으로 표기한 것은 HS 6 digit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미국의 1차(2018년 7월 6일), 2차(2018년 8월 23일) 및 3차(2018년 9월 24일) 대중 보복관세 부과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낸 것임. 관세 부과여부는 미국의 HS 8 digit 해당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6 digit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표 10>은 2018년 7월 이후 부산의 대중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수출동향을 정리한 것임. HS 6 digit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7월부터 2019년 2/4분기까지 부산 대중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수출액 합계는 2018년 3/4

분기 98.0백만 달러에서 2019년 2/4분기 221.4백만 달러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분기 26.7%에서 2019년 2/4분기 4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부 양수로 나타나 수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증가율도 점점 커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HS 6 digit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0개 품목 중에 3개를 제외한 17개 품목이 미국의 1~3차 대중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품목이 자본재 또는 중간재로서 중간에서 가공되어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들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음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미 수출 상위 품목과 대중 수출 상위 품목은 20개 중에서 불과 6개 품목만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즉, 대미 주요 수출품목과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서로 구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의 전체 수출 중 상위 20개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부산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함. 그 이유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자본재 등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라 제3국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11> 부산의 대중 수출 중 상위 20개 품목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백만 달러)

순위	제재 해당 여부	대미상위20개 수출품목해당 여부	HS code	대중 수출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1	3	○	840999	-10.0	3.6	55.8	374.4
2	1		391990	270.5	176.1	101.0	80.6
3	3		853400	24.8	-26.6	-19.2	-42.7
4	1		890190	-100.0	-86.6	-	-100.0
5	3		320890	23.0	103.8	41.8	-41.3
6	3	○	731210	27.4	23.3	17.1	6.9
7	3	○	848180	34.0	10.2	29.4	-61.5
8			722990	-29.2	107.3	67.6	275.7
9	3	○	392690	-7.7	-8.4	124.8	248.7
10	1		847989	-76.9	-63.9	-34.0	-44.7
11	1		853690	-0.2	-35.6	-26.6	15.2
12	3		732690	-36.6	269.3	244.0	559.7
13	1		841229	34.4	-7.0	12.2	14.7
14	1	○	850131	43.6	19.0	24.0	30.9
15			842410	63.2	79.6	147.3	78.1
16	1		842121	-	-	162.9	164.4

순위	제재 해당 여부	대미상위20개 수출품목해당 여부	HS code	대중 수출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17			721710	3.2	-8.4	-25.8	-21.2
18	3		330499	-	296.4	1,579.2	193.5
19	1	○	848210	31.6	-41.9	-30.6	-50.2
20	3		260300	-	-	-	-
합계	-		-	98.0	103.9	163.7	221.4
기간 중 수출 대비 비중	-		-	26.7	27.1	38.9	44.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2.5	7.3	82.4	62.7

주) 제재 해당여부에 1, 2 3으로 표기한 것은 HS 6 digit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미국의 1차(2018년 7월 6일), 2차(2018년 8월 23일) 및 3차(2018년 9월 24일) 대중 보복관세 부과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낸 것임. 관세 부과여부는 미국의 HS 8 digit 해당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6 digit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2. 미・중의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 시장 수입 동향 분석

가. 미국의 상위 수입 품목별 동향

○ <표 11>은 2018년 7월 이후 미국의 전체 수입 중 HS 6 digit 상위 20개 품목의 분기별 수입 증감률을 정리한 것임

- 미국에서 수입 상위 20개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초반대인 것으로 나타남
- 18년 3/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시작 전에 많은 물량이 수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18년 4/4분기 이후로는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재품목은 20개 상위 품목 전체보다 18년 4/4분기 이후 전년 동기대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미중 무역분쟁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전체 수입을 보는 것보다는 국가별 수입 동향을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이후에는 미국의 대한 수입과 대중 수입을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함

<표 12> 미국의 전체 수입 중 상위 20개 품목 수입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십억 달러)

순위	제재해당 여부	HS code	전체 수입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1	3	270900	42.2	-23.5	-21.6	-9.9
2	1	870323	-3.8	1.3	4.4	7.6
3		980100	19.8	19.4	17.6	16.0
4		300490	10.0	12.1	-8.4	19.4
5		851712	6.1	-21.4	-2.9	2.7
6		847130	-4.9	-0.8	2.5	16.1
7	1	870324	-19.4	-9.0	-14.6	-6.2
8	3	851762	10.7	-11.9	-21.0	-23.1
9	1	271019	54.3	12.4	-3.3	8.5
10	3	847150	33.4	17.6	1.8	-5.4
11	3	271012	35.6	3.2	-1.0	3.8
12		710239	10.1	12.1	4.1	-17.2
13	1	870322	59.4	33.1	18.1	8.6
14	1	854231	10.4	-3.0	-3.0	-13.2
15	1	870431	34.6	26.0	29.0	24.4
16		300215	28.5	91.0	51.5	23.7
17		999995	5.3	6.1	5.1	3.5
18	1	880330	17.1	17.1	17.6	5.0
19	1	847330	24.3	6.4	-25.9	-33.7
20	1	841191	12.5	6.2	32.8	3.8
합계	-	-	216.8	205.7	188.4	210.2
기간 중 수입 대비 비중	-	-	33.3	31.3	31.5	33.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16.7	-0.4	-2.7	0.6
제재품목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20.6	-3.3	-6.8	-4.4

○ <표 12>는 2018년 7월 이후 미국의 대한 수입 중 HS 6 digit 상위 20개 품목의 분기별 수입 증감률을 정리한 것임

- 미국의 대한 수입에서 수입 상위 20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초중반대인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중에는 전년 동기대비 대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18년 4/4분기 이후로 전년 동기대비 수입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8년 4/4분기 이후 제재품목은 20개 상위 품목 전체보다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전환효과로 인하여 미국의 대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3> 미국의 대한 수입 중 상위 20개 품목 수입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십억 달러)

순위	제재해당 여부	HS code	대한 수입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1	1	870323	-10.9	24.1	9.7	18.6
2		851712	-27.1	-66.7	38.0	-26.7
3	1	847330	46.2	167.0	85.2	-13.7
4	1	271019	46.0	31.0	91.2	46.7
5	1	870322	46.8	11.5	-2.3	17.9
6		300214	809.4	500.2	110.5	15.7
7	1	870324	-61.7	23.7	12.6	179.3
8	1	854239	-22.4	3.7	-4.3	13.2
9	3	870899	4.3	9.3	9.3	-6.9
10		980100	10.0	42.5	21.8	-4.3
11	3	401110	-10.2	27.3	22.8	2.3
12	3	841810	-25.9	3.6	22.9	22.3
13	3	870829	14.7	65.4	82.9	19.1
14		852351	47.5	-8.9	3.1	75.2
15	1	880330	14.2	15.9	30.8	6.1
16		850760	61.3	36.3	-7.5	19.8
17	1	870340	5.1	-31.7	-4.1	24.7
18	1	842952	34.7	22.2	58.3	4.8
19	1	854140	-46.6	-55.2	-32.4	49.2
20	1	854231	2.5	39.8	23.2	22.9
합계	-	-	9.7	10.9	10.4	10.1
기간 중 수입 대비 비중	-	-	51.7	54.3	52.5	52.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3.8	17.9	27.4	12.5
제재품목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1.0	30.6	24.1	18.2

○ <표 13>은 2018년 7월 이후 미국의 대중 수입 중 HS 6 digit 상위 20개 품목의 분기별 수입 증감률을 정리한 것임

- 미국의 대중 수입에서 수입 상위 20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초중반대인 것으로 나타남

- 18년 3/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시작 전에 많은 물량이 수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18년 4/4분기 이후로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재품목은 20개 상위 품목 전체보다 18년 4/4분기 이후 수입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대중 수입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음

<표 14> 미국의 대중 수입 중 상위 20개 품목 수입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억 달러)

순위	제재해당 여부	HS code	대중 수입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9 2/4분기
1		847130	-3.9	1.6	1.6	16.0
2		851712	4.2	-17.1	-30.3	-1.5
3	3	851762	13.0	-8.7	-29.2	-28.9
4		950300	0.1	2.6	-1.9	18.7
5	1	847330	23.1	-48.9	-67.5	-70.8
6		852852	-11.1	5.3	13.0	0.1
7	3	852872	-13.8	48.3	47.6	12.3
8	1	850440	12.2	10.8	-11.0	-23.3
9		999995	10.3	15.6	13.3	10.6
10	3	392690	20.8	29.4	22.8	21.1
11	3	940320	15.6	27.1	-16.0	-16.1
12	3	940161	7.7	11.8	-12.7	-22.9
13		630790	5.7	15.5	10.3	12.1
14		640299	0.8	-7.5	-4.9	-8.8
15	1	852580	22.5	4.3	2.3	9.6
16		852351	-13.7	-21.3	-26.3	-24.1
17		640419	-5.1	5.0	-2.5	4.4
18		980100	29.4	-0.6	0.3	25.9
19		392410	10.8	20.8	13.7	18.0
20	3	391810	46.6	81.1	19.5	1.7
합계	-	-	49.6	52.7	34.1	38.6
기간 중 수입 대비 비중	-	-	34.2	36.4	32.2	34.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5.1	-6.2	-18.0	-7.9
제재품목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15.0	-5.2	-28.7	-31.4

나. 미국시장에서의 경합도 분석

○ 본 분석에서는 수출경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함

-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란 양 지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ESI_c^{ab} = \left[\sum_i \min\left\{ \frac{X_c^{a_i}}{X_c^a}, \frac{X_c^{b_i}}{X_c^b} \right\} \right] \times 100$$

여기서 ESI_c^{ab}는 c국 수입시장에서 a국과 b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를 의미하며, X_c^a와 X_c^b는 각각 a국과 b국의 c국에 대한 총 수출액, $X_c^{a_i}$와 $X_c^{b_i}$는 각각 a국과 b국의 c국에 대한 i 산업 수출액을 나타내는 것임. 이론적으로 양 국의 수출구조가 완전히 상이하면 수출경합도 지수는 0이 되고, 100에 가까울수록 수출 구조가 유사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출경합도지수 외에 수출경합품목수 비중을 같이 구하여 제시하도록 함. 수출경합품목수 비중은 전체 품목 수 중에서 두 국가가 동시에 수출하는 품목 수의 비중을 의미함

○ 본 분석에서는 HS 2 digit와 HS 6 digit 분류를 기준으로 미국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부산 및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를 분석하도록 함

- 품목을 세부로 분류할수록 수출경합도지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HS 2 digit을 기준으로 한 수출경합도 지수는 HS 6 digit을 기준으로 한 수출경합도 지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에서는 미국시장에서 부산의 수출경합도를 구하고자 함. 그런데 미국시장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중에서 부산에서의 수입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미국의 수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수입을 구하고, 부산의 경우는 부산이 미국에 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부산으로부터 수입한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함. 수출과 수

입은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부산의 수출액과 미국에서 부산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시장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과 부산으로부터의 수입은 서로 경합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 분석에서는 동일한 시장을 두고 국내의 다른 지역과 경합을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전체와 부산도 경합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출경합도지수를 별도로 구하도록 함

○ HS 2 digit을 기준으로 측정한 미국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8년 61.3%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부산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55.9%로서 중국보다 경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8년 32.3%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보다는 중국 상품과의 경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경합품목수 비중은 한국과 중국 간에는 2018년 99.0%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동시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부산과 한국 및 중국의 경우에도 그 비중 값이 83.7%에서 84.7%에 달하여 대부분의 품목을 동시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수출경합도 지수(HS 2 digit 기준)

(단위: %)

	2018년			2017년		
	한국	부산	중국	한국	부산	중국
한국		55.9	61.3		55.6	59.1
부산	(83.7)		32.3	(78.6)		27.5
중국	(99.0)	(84.7)		(100.0)	(78.6)	

주: 대각선 위의 수치는 수출경합도지수이며, 대각선 아래의 괄호 안의 수치는 수출경합품목수 비중을 나타냄

○ HS 6 digit을 기준으로 부산의 상위 500개 수출 품목[1]을 대상으로 측정한 미국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8년 14.3%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부산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23.4%로서 중국보다는 경

1) 2018년 기준 부산에서 대미 상위 500개 품목의 수출은 대미 수출 전체 중에서 99.7%의 비중을 차지함

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2018년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만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간 수출경합도 지수를 구해보면, 그 값이 12.1%로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출경합도지수 값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임.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 품목이 우리나라가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가격측면에서 추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부산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8년 9.4%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중국 상품과의 경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만을 대상으로 부산과 중국 간 수출경합도 지수를 구해보면, 그 값이 7.8%로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출경합도지수 값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 품목이 부산이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산이 가격측면에서 추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수출경합품목수 비중은 한국과 중국 간에는 2018년 42.0%로 많은 품목을 동시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부산과 한국 및 중국의 경우에도 그 비중 값이 42.3%에서 35.2%로 나타나 많은 품목을 동시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6> 수출경합도 지수(HS 6 digit 기준)

(단위: %)

	2018년			2017년		
	한국	부산	중국	한국	부산	중국
한국		23.4 [22.0]	14.3 [12.1]		22.3 [20.9]	14.3 [12.1]
부산	(42.3)		9.4 [7.8]	(42.3)		8.4 [6.7]
중국	(42.0)	(35.2)		(42.0)	(35.2)	

주: 대각선 위의 수치는 대괄호 [ ]가 없는 것이 수출경합도지수이며, 대괄호가 있는 것이 제재품목에서의 수출경합도지수임. 대각선 아래의 괄호 안의 수치는 수출경합품목수 비중을 나타냄

Ⅳ.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부산지역 제조업 설문조사 분석

1. 분석 개요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필요

- 실태조사에는 사업체 일반 현황 및 수출입 관련현황, 미중 무역분쟁의 전반적 영향, 미중 무역분쟁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정부 및 부산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부산상공회의소의 회원기업 중 제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7~8월 중 조사를 실시하여 300개사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함
- 응답업체의 업종과 매출액 자료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칭을 하였음

○ 응답업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종사자 규모로는 20~49인과 50~99인이 각각 90개(30.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8개(6.0%)인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149개(49.7%)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으로 보면, 20% 미만이 102개(35.2%)로 가장 많고, 20%~40% 미만이 58개(20.0%)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남. 40% 이상의 경우는 각 그룹별로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이 78개(2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차금속 제조업 39개(13.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개(9.3%), 전기장비 제조업 25개(8.3%)의 순서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부산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기계부품 장비 관련 업종이 많이 응답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음

<표 17> 응답업체 특성

(단위: 개, %)

변수	구분 항목	개수(%)	변수	구분항목	개수(%)
종사자 규모	20인 미만	35(11.7)	업종	10.식료품 제조업	19(6.3)
	20~49인	90(30.1)		11.음료 제조업	2(0.7)
	50~99인	90(30.1)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1(3.7)
	100~299인	66(22.1)		1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7(2.3)
	300인 이상	18(6.0)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1.7)
	합계	299(100.0)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7)
매출액 규모	50억 미만	38(12.7)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15(5.0)
	50억~100억 미만	54(18.0)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6.0)
	100억~500억 미만	149(49.7)		24.1차 금속 제조업	39(13.0)
	500억~1,000억 미만	27(9.0)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9.3)
	1,000억 이상	32(10.7)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8(2.7)
	합계	300(100.0)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7)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미만	102(35.2)		28.전기장비 제조업	25(8.3)
	20%~40% 미만	58(20.0)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8(26.0)
	40%~60% 미만	43(14.8)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7.3)
	60~80% 미만	45(15.5)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4.7)
	80% 이상	42(14.5)		33.기타 제품 제조업	2(0.7)
	합계	290(100.0)		합계	300(100.0)

○ 응답업체의 업종별 수출액 및 수출국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응답업체가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금액은 4조 7,2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2018년 부산 수출금액이 144억 1,000만 달러로서 원화 환산금액이 15조 8,5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응답업체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수출액이 큰 업종은 1차금속 제조업으로 1조 2,655억원(26.8%)이고, 그 다음으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052억원(17.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333억원(11.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국별 수출액을 보면, 기타 지역을 제외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조 1,354억원(2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남아 1조 570억원(22.4%), 중국 6,638억원(14.0%), 유럽 5,710억원(12.1%)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

서 부산지역 주요업체의 수출국별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비중과는 다소 다르게, 중국보다는 미국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부산 수출통계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표 18> 응답업체 업종별 수출액 및 수출국 분포

(단위: 억원, %)

업종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기타		합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0	137.8	9.1	51.7	3.4	232.6	15.4	108.3	7.2	980.1	64.9	1,510.5
11	-	-	24.5	60.0	-	-	16.3	40.0	-	-	40.9
13	500.9	21.6	209.2	9.0	219.1	9.5	488.2	21.1	898.6	38.8	2,316.0
14	273.5	55.3	47.5	9.6	57.6	11.7	102.4	20.7	13.3	2.7	494.4
15	-	-	26.3	3.5	5.2	0.7	674.4	88.9	52.5	6.9	758.3
19	-	-	434.6	31.6	-	-	632.6	46.0	308.1	22.4	1,375.3
20	720.9	19.5	778.9	21.0	330.8	8.9	942.7	25.5	930.1	25.1	3,703.4
22	426.3	15.0	662.8	23.3	345.0	12.1	616.9	21.7	794.5	27.9	2,845.5
24	2,728.4	21.6	1,351.3	10.7	2,392.3	18.9	3,256.7	25.7	2,926.6	23.1	12,655.3
25	2,090.3	26.0	735.0	9.1	766.8	9.5	1,867.8	23.2	2,591.8	32.2	8,051.7
26	71.4	9.5	64.7	8.6	35.7	4.8	104.9	14.0	473.6	63.1	750.3
27	92.7	19.0	92.7	19.0	93.3	19.2	110.6	22.7	97.7	20.1	487.1
28	1,274.0	51.0	239.7	9.6	51.9	2.1	330.1	13.2	602.0	24.1	2,497.6
29	1,907.3	35.8	896.0	16.8	436.2	8.2	586.2	11.0	1,506.7	28.3	5,332.5
30	938.4	29.5	611.0	19.2	520.0	16.3	533.4	16.7	582.9	18.3	3,185.8
31	125.4	10.5	412.4	34.7	214.0	18.0	198.8	16.7	238.5	20.1	1,189.2
33	66.4	86.8	-	-	10.1	13.2	-	-	-	-	76.5
합계	11,353.8	24.0	6,638.3	14.0	5,710.4	12.1	10,570.5	22.4	12,997.2	27.5	47,270.2

2. 분석결과

가. 미중 무역 분쟁의 전반적인 영향

○ 미중 무역 분쟁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7개(2.3%), ‘부정적’은 211개(70.3%), ‘영향 없음’은 79개(26.3%),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5점 척도값을 부여할 때, 평균은 2.26인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 규모, 매출액 규모 및 수출비중에 따라, 응답에는 약간씩의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단, 매출액 규모가 크거나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9> 응답업체 특성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68.6	31.4	0.0	0.0	35
	20~50인미만	3.3	74.4	21.1	1.1	0.0	90
	50~100인미만	2.2	68.9	28.9	0.0	0.0	90
	100~300인미만	1.5	65.2	30.3	3.0	0.0	66
	300인이상	5.6	77.8	16.7	0.0	0.0	18
	합계	2.3	70.2	26.4	1.0	0.0	2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60.5	39.5	0.0	0.0	38
	50억~100억미만	1.9	75.9	20.4	1.9	0.0	54
	100억~500억미만	2.7	70.5	26.8	0.0	0.0	149
	500억~1,000억미만	0.0	63.0	29.6	7.4	0.0	27
	1,000억이상	6.3	78.1	15.6	0.0	0.0	32
	합계	2.3	70.3	26.3	1.0	0.0	300
수출 비중	20% 미만	0.0	68.6	30.4	1.0	0.0	102
	20~40% 미만	1.7	75.9	22.4	0.0	0.0	58
	40~60% 미만	2.3	74.4	20.9	2.3	0.0	43
	60~80% 미만	6.7	75.6	17.8	0.0	0.0	45
	80% 이상	4.8	59.5	33.3	2.4	0.0	42
	합계	2.4	70.7	25.9	1.0	0.0	290

○ 미중 무역 분쟁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개(2.7%), ‘부정적’은 201개(67.0%), ‘영향 없음’은 88개(29.3%),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5점 척도값을 부여할 때, 평균은 2.29인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응답은 세계경제에 대한 응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종사자 규모, 매출액 규모 및 수출비중에 따라, 응답에는 약간씩의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20> 응답업체 특성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2.9	65.7	31.4	0.0	0.0	35
	20~50인미만	4.4	70.0	24.4	1.1	0.0	90
	50~100인미만	2.2	68.9	28.9	0.0	0.0	90
	100~300인미만	0.0	59.1	37.9	3.0	0.0	66
	300인이상	5.6	72.2	22.2	0.0	0.0	18
	합계	2.7	66.9	29.4	1.0	0.0	2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2.6	55.3	42.1	0.0	0.0	38
	50억~100억미만	1.9	74.1	22.2	1.9	0.0	54
	100억~500억미만	3.4	67.8	28.9	0.0	0.0	149
	500억~1,000억미만	0.0	55.6	37.0	7.4	0.0	27
	1,000억이상	3.1	75.0	21.9	0.0	0.0	32
	합계	2.7	67.0	29.3	1.0	0.0	300
수출 비중	20% 미만	1.0	64.7	33.3	1.0	0.0	102
	20~40% 미만	3.4	70.7	25.9	0.0	0.0	58
	40~60% 미만	2.3	65.1	30.2	2.3	0.0	43
	60~80% 미만	4.4	77.8	17.8	0.0	0.0	45
	80% 이상	4.8	59.5	33.3	2.4	0.0	42
	합계	2.8	67.2	29.0	1.0	0.0	290

○ 미중 무역 분쟁의 부산경제에 대한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개(2.7%), ‘부정적’은 184개(61.3%), ‘영향 없음’은 105개(35.0%),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5점 척도값을 부여할 때, 평균은 2.34인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경제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대한 응답과 비교할 때, 조금이나마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종사자 규모, 매출액 규모 및 수출비중에 따라, 응답에는 약간씩의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21> 응답업체 특성별 부산경제에 대한 영향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2.9	60.0	37.1	0.0	0.0	35
	20~50인미만	3.3	65.6	30.0	1.1	0.0	90
	50~100인미만	2.2	65.6	32.2	0.0	0.0	90
	100~300인미만	1.5	48.5	47.0	3.0	0.0	66
	300인이상	5.6	66.7	27.8	0.0	0.0	18
	합계	2.7	61.2	35.1	1.0	0.0	2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2.6	47.4	50.0	0.0	0.0	38
	50억~100억미만	1.9	72.2	24.1	1.9	0.0	54
	100억~500억미만	2.7	61.1	35.6	0.7	0.0	149
	500억~1,000억미만	3.7	48.1	44.4	3.7	0.0	27
	1,000억이상	3.1	71.9	25.0	0.0	0.0	32
	합계	2.7	61.3	35.0	1.0	0.0	300
수출 비중	20% 미만	1.0	57.8	40.2	1.0	0.0	102
	20~40% 미만	1.7	65.5	31.0	1.7	0.0	58
	40~60% 미만	4.7	55.8	39.5	0.0	0.0	43
	60~80% 미만	4.4	73.3	22.2	0.0	0.0	45
	80% 이상	4.8	59.5	33.3	2.4	0.0	42
	합계	2.8	61.7	34.5	1.0	0.0	290

나. 미중 무역 분쟁의 업체에 대한 영향

○ 수출품 유형에 따른 미국수출여부와 경유지 및 중국산 대비 경쟁력

- 중간재/자본재를 수출하는 업체는 152개(50.7%)인데, 이들 중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27개(1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경유지가 중국인 경우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국에 중간재/자본재를 수출하고 이 중간재/자본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중국을 경유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22> 중간재/자본재 수출업체의 완제품 미국수출여부 및 경유지

(단위: 개, %)

수출품 유형	빈도	완제품의 미국수출 여부	빈도	경유지 국가	빈도
중간재/자본재	152(50.7)	예	27(17.8)	중국	3(11.1)
				동남아	1(3.7)
				기타 및 모름	23(85.2)
		아니오	125(82.2)	-	-

- 소비재를 수출하는 업체는 156개(52.0%)인데, 이들 중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70개(44.9%) 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소비재의 중국산 대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약함’은 2.9%, ‘대등함’은 12.9%에 불과한 데 비하여, ‘강함’은 67.1%, ‘매우 강함’은 17.1%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중국산 대비 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은 평균 3.99로 강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부과는 미국의 무역전환 효과로 인하여 부산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3> 소비재 수출업체의 미국수출여부 및 중국산 대비 경쟁력

(단위: %, 점)

수출품 유형	빈도	미국수출 여부	빈도	중국산 대비 경쟁력					
				매우 약함	약함	대등함	강함	매우 강함	리커트 평균
소비재	156(52.0)	예	70(44.9)	0.0	2.9	12.9	67.1	17.1	3.99
		아니오	86(55.1)	-	-	-	-	-	-

*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낸 평균값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중국산 대비 경쟁력이 강하고, 멀어질수록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

○ 부산지역 업체 수출품과 미국의 대중 관세품목과의 관련성

- 부산지역 업체들은 자사의 수출품과 미국의 대중 관세품목과의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개(4.7%), 간접적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5개(8.3%)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산지역 업체의 경우, 중간재 및 자본재 수

출이 중국을 경유하여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비재 수출의 경우는 중국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24> 부산지역 업체 수출품과 미국의 대중 관세품목과의 관련성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직접적 관계	간접적 관계	관계없음	모름	소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5.7	94.3	0.0	35
	20~50인미만	2.2	3.3	94.4	0.0	90
	50~100인미만	10.0	11.1	77.8	1.1	90
	100~300인미만	4.5	12.1	83.3	0.0	66
	300인이상	0.0	11.1	88.9	0.0	18
	합계	4.7	8.4	86.6	0.3	2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5.3	94.7	0.0	38
	50억~100억미만	5.6	9.3	85.2	0.0	54
	100억~500억미만	5.4	4.7	89.3	0.7	149
	500억~1,000억미만	7.4	25.9	66.7	0.0	27
	1,000억이상	3.1	12.5	84.4	0.0	32
	합계	4.7	8.3	86.7	0.3	300
수출 비중	20% 미만	2.0	9.8	88.2	0.0	102
	20~40% 미만	5.2	5.2	87.9	1.7	58
	40~60% 미만	4.7	4.7	90.7	0.0	43
	60~80% 미만	6.7	13.3	80.0	0.0	45
	80% 이상	2.4	7.1	90.5	0.0	42
	합계	3.8	8.3	87.6	0.3	290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개(1.7%), '부정적'은 53개(17.7%), '영향 없음'은 238개(79.3%),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은 1개(0.3%)인 것으로 나타남. 5점 척도값을 부여할 때, 평균은 2.80인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수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응답은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또는 부산경제에 대한 응답과 비교할 때,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작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종사자 규모, 매출액 규모 및 수출비중에 따라, 응답에는 약간씩의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25> 응답업체 특성별 부산지역 업체 수출에 대한 영향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2.9	14.3	82.9	0.0	0.0	35
	20~50인미만	2.2	16.7	81.1	0.0	0.0	90
	50~100인미만	2.2	16.7	78.9	2.2	0.0	90
	100~300인미만	0.0	18.2	80.3	1.5	0.0	66
	300인이상	0.0	33.3	61.1	0.0	5.6	18
	합계	1.7	17.7	79.3	1.0	0.3	2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2.6	5.3	92.1	0.0	0.0	38
	50억~100억미만	1.9	13.0	85.2	0.0	0.0	54
	100억~500억미만	2.0	17.4	79.9	0.7	0.0	149
	500억~1,000억미만	0.0	29.6	63.0	7.4	0.0	27
	1,000억이상	0.0	31.3	65.6	0.0	3.1	32
	합계	1.7	17.7	79.3	1.0	0.3	300
수출 비중	20% 미만	1.0	12.7	86.3	0.0	0.0	102
	20~40% 미만	1.7	19.0	77.6	1.7	0.0	58
	40~60% 미만	2.3	27.9	67.4	2.3	0.0	43
	60~80% 미만	2.2	22.2	73.3	2.2	0.0	45
	80% 이상	2.4	14.3	81.0	0.0	2.4	42
	합계	1.7	17.9	79.0	1.0	0.3	290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국가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국가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음. 응답한 표본 수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 경우는 75% 내외, 대미국 수출의 경우는 83% 내외, 대동남아 수출의 경우는 84% 내외, 그리고 전체 수출의 경우는 78% 내외가 '영향 없음'으로 대답함.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다른 국가 수출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대중국 수출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6> 응답업체 특성별 부산지역 업체의 지역별 수출에 대한 영향(중국 및 미국)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대중국 수출				대미국 수출			
		감소	영향 없음	증가	합계	감소	영향 없음	증가	합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16.1	83.9	0.0	31	12.9	87.1	0.0	31
	20~50인미만	14.1	84.6	1.3	78	4.9	92.6	2.5	81
	50~100인미만	20.5	76.7	2.7	73	13.7	83.6	2.7	73
	100~300인미만	29.4	68.6	2.0	51	20.0	78.2	1.8	55
	300인이상	73.3	26.7	0.0	15	56.3	43.8	0.0	16
	합계	23.0	75.4	1.6	248	14.8	83.2	2.0	256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5.7	94.3	0.0	35	5.6	94.4	0.0	36
	50억~100억미만	18.0	80.0	2.0	50	12.0	86.0	2.0	50
	100억~500억미만	19.8	78.5	1.7	121	11.1	87.3	1.6	126
	500억~1,000억미만	35.0	60.0	5.0	20	23.8	66.7	9.5	21
	1,000억이상	65.2	34.8	0.0	23	45.8	54.2	0.0	24
	합계	22.9	75.5	1.6	249	14.8	83.3	1.9	257
수출 비중	20% 미만	20.7	76.8	2.4	82	11.8	87.1	1.2	85
	20~40% 미만	24.4	73.3	2.2	45	16.3	81.4	2.3	43
	40~60% 미만	35.1	64.9	0.0	37	20.5	76.9	2.6	39
	60~80% 미만	30.8	66.7	2.6	39	19.0	78.6	2.4	42
	80% 이상	8.1	91.9	0.0	37	12.8	84.6	2.6	39
	합계	22.6	72.6	1.6	248	15.3	82.7	2.0	248

<표 27> 응답업체 특성별 부산지역 업체의 지역별 수출에 대한 영향(동남아 및 전체)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대동남아 수출				전체 수출			
		감소	영향 없음	증가	합계	감소	영향 없음	증가	합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15.6	84.4	0.0	32	22.9	77.1	0.0	35
	20~50인미만	9.6	89.2	1.2	83	14.4	82.2	3.3	90
	50~100인미만	9.3	89.3	1.3	75	17.8	80.0	2.2	90
	100~300인미만	21.4	78.6	0.0	56	19.7	78.8	1.5	66
	300인이상	50.0	50.0	0.0	16	50.0	50.0	0.0	18
	합계	15.3	84.0	0.8	262	19.7	78.3	2.0	2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8.1	91.9	0.0	37	13.2	86.8	0.0	38
	50억~100억미만	11.8	86.3	2.0	51	16.7	81.5	1.9	54
	100억~500억미만	10.2	89.8	0.0	128	16.1	81.9	2.0	149
	500억~1,000억미만	28.6	66.7	4.8	21	33.3	59.3	7.4	27
	1,000억이상	46.2	53.8	0.0	26	37.5	62.5	0.0	32
	합계	15.2	84.0	0.8	263	19.7	78.3	2.0	300
수출 비중	20% 미만	10.1	88.8	1.1	89	18.6	80.4	1.0	102
	20~40% 미만	12.2	87.8	0.0	49	15.5	81.0	3.4	58
	40~60% 미만	20.5	79.5	0.0	39	27.9	69.8	2.3	43
	60~80% 미만	25.6	71.8	2.6	39	28.9	68.9	2.2	45
	80% 이상	17.5	82.5	0.0	40	14.3	83.3	2.4	42
	합계	15.6	83.6	0.8	256	20.3	77.6	2.1	290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77.3%로 가장 많음. 그 다음이 0~10% 감소가 15.3%, 10~20% 감소가 3.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미중 무역분쟁이 매출액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에 중간재/자본재를 수출하고 이 중간재/자본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비재를 수출하는 업체의 중국산 대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부산지역 업체들은 자사의 수출품과 미국의 대중 관세품목과의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표 28> 응답업체 특성별 부산지역 업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30% 이상 감소	20~30% 감소	10~20% 감소	0~10% 감소	영향 없음	0~10% 증가	10~20% 증가	20~30% 증가	30% 이상 증가	합계
종사자규모	20인미만	2.9	0.0	2.9	17.1	77.1	0.0	0.0	0.0	0.0	35
	20~50인미만	0.0	2.2	3.3	12.2	78.9	1.1	1.1	0.0	1.1	90
	50~100인미만	2.2	1.1	2.2	16.7	75.6	2.2	0.0	0.0	0.0	90
	100~300인미만	0.0	0.0	4.5	10.6	83.3	1.5	0.0	0.0	0.0	66
	300인이상	0.0	0.0	5.6	38.9	55.6	0.0	0.0	0.0	0.0	18
	합계	1.0	1.0	3.3	15.4	77.3	1.3	0.3	0.0	0.3	299
매출액규모	50억미만	2.6	0.0	2.6	7.9	86.8	0.0	0.0	0.0	0.0	38
	50억~100억미만	0.0	0.0	0.0	18.5	79.6	0.0	0.0	0.0	1.9	54
	100억~500억미만	1.3	0.7	3.4	13.4	79.2	1.3	0.7	0.0	0.0	149
	500억~1,000억미만	0.0	3.7	7.4	18.5	63.0	7.4	0.0	0.0	0.0	27
	1,000억이상	0.0	3.1	6.3	25.0	65.6	0.0	0.0	0.0	0.0	32
	합계	1.0	1.0	3.3	15.3	77.3	1.3	0.3	0.0	0.3	300
수출비중	20% 미만	1.0	0.0	2.0	13.7	82.4	0.0	0.0	0.0	1.0	102
	20~40% 미만	1.7	0.0	0.0	13.8	81.0	1.7	1.7	0.0	0.0	58
	40~60% 미만	0.0	4.7	2.3	20.9	69.8	2.3	0.0	0.0	0.0	43
	60~80% 미만	2.2	0.0	2.2	24.4	68.9	2.2	0.0	0.0	0.0	45
	80% 이상	0.0	2.4	11.9	9.5	73.8	2.4	0.0	0.0	0.0	42
	합계	1.0	1.0	3.1	15.9	76.9	1.4	0.3	0.0	0.3	290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76.7%로 가장 많음. 그 다음이 0~10% 감소가 16.0%, 10~20% 감소가 3.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미중 무역분쟁이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표 29> 응답업체 특성별 부산지역 업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30% 이상 감소	20~30% 감소	10~20% 감소	0~10% 감소	영향 없음	0~10% 증가	10~20% 증가	20~30% 증가	30% 이상 증가	합계
종사자규모	20인미만	2.9	0.0	2.9	17.1	77.1	0.0	0.0	0.0	0.0	35
	20~50인미만	0.0	2.2	3.3	13.3	77.8	1.1	1.1	0.0	1.1	90
	50~100인미만	2.2	1.1	2.2	16.7	75.6	2.2	0.0	0.0	0.0	90
	100~300인미만	0.0	0.0	4.5	12.1	81.8	1.5	0.0	0.0	0.0	66
	300인이상	0.0	0.0	5.6	38.9	55.6	0.0	0.0	0.0	0.0	18
	합계	1.0	1.0	3.3	16.1	76.6	1.3	0.3	0.0	0.3	299
매출액규모	50억미만	2.6	0.0	2.6	7.9	86.8	0.0	0.0	0.0	0.0	38
	50억~100억미만	0.0	0.0	0.0	20.4	77.8	0.0	0.0	0.0	1.9	54
	100억~500억미만	1.3	0.7	3.4	13.4	79.2	1.3	0.7	0.0	0.0	149
	500억~1,000억미만	0.0	3.7	7.4	18.5	63.0	7.4	0.0	0.0	0.0	27
	1,000억이상	0.0	3.1	6.3	28.1	62.5	0.0	0.0	0.0	0.0	32
	합계	1.0	1.0	3.3	16.0	76.7	1.3	0.3	0.0	0.3	300
수출비중	20% 미만	1.0	0.0	2.0	13.7	82.4	0.0	0.0	0.0	1.0	102
	20~40% 미만	1.7	0.0	0.0	13.8	81.0	1.7	1.7	0.0	0.0	58
	40~60% 미만	0.0	4.7	2.3	23.3	67.4	2.3	0.0	0.0	0.0	43
	60~80% 미만	2.2	0.0	2.2	26.7	66.7	2.2	0.0	0.0	0.0	45
	80% 이상	0.0	2.4	11.9	9.5	73.8	2.4	0.0	0.0	0.0	42
	합계	1.0	1.0	3.1	16.6	76.2	1.4	0.3	0.0	0.3	290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손해 발생원인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에 손해를 미친다면 그 원인은 주로 세계경기 둔화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8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국내의 대중국 수출감소가 6.7%, 중국현지법인 미국 수출 감소가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부산지역 업체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은행(2019. 10)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함. 성장률 하락분 가운데 0.2%p는 무역경로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미중 간 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양국 내수 둔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함. 나머지 0.2%p는 불확실성 경로에서 비롯한 것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함.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산으로 부산지역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

<표 30> 응답업체 특성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손해 발생원인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국내의 대중국 수출감소	중국현지법인 대미수출감소	세계경기 둔화	합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5.7	2.9	91.4	35
	20~50인미만	3.3	3.3	93.3	90
	50~100인미만	10.1	1.1	87.6	89
	100~300인미만	7.6	0.0	86.4	66
	300인이상	5.6	16.7	77.8	18
	합계	6.7	2.7	88.9	298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2.6	0.0	97.4	38
	50억~100억미만	1.9	3.7	94.4	54
	100억~500억미만	7.4	2.0	89.3	149
	500억~1,000억미만	19.2	0.0	69.2	26
	1,000억이상	6.3	9.4	84.4	32
	합계	6.7	2.7	89.0	299
수출 비중	20% 미만	4.9	2.0	91.2	102
	20~40% 미만	8.6	0.0	91.4	58
	40~60% 미만	4.7	4.7	90.7	43
	60~80% 미만	9.1	6.8	81.8	44
	80% 이상	7.1	2.4	85.7	42
	합계	6.6	2.8	88.9	289

○ 기업 차원의 자체 대응현황

- 기업차원의 자체 대응을 보면 '대책없음'이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경기 둔화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차원에서는 대처할 방안이 적절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1> 응답업체 특성별 자체 대응현황

(단위: %, 개)

변수	구분항목	중국수출비중 축소	중국이외 생산시설 이전	제3국시장 개척	국내투자 및 고용축소	대책없음	합계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2.9	2.9	94.3	35
	20~50인미만	1.1	1.1	0.0	0.0	97.8	90
	50~100인미만	1.1	1.1	3.3	0.0	94.4	90
	100~300인미만	1.5	0.0	6.1	0.0	92.4	66
	300인이상	0.0	0.0	0.0	5.6	94.4	18
	합계	1.0	0.7	2.7	0.7	95.0	2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0.0	2.6	97.4	38
	50억~100억미만	0.0	1.9	0.0	0.0	98.1	54
	100억~500억미만	0.7	0.7	3.4	0.0	95.3	149
	500억~1,000억미만	7.4	0.0	11.1	0.0	81.5	27
	1,000억이상	0.0	0.0	0.0	3.1	96.9	32
	합계	1.0	0.7	2.7	0.7	95.0	300
수출 비중	20% 미만	0.0	0.0	2.0	1.0	97.1	102
	20~40% 미만	1.7	1.7	0.0	0.0	96.6	58
	40~60% 미만	0.0	2.3	7.0	0.0	90.7	43
	60~80% 미만	2.2	0.0	2.2	2.2	93.3	45
	80% 이상	2.4	0.0	4.8	0.0	92.9	42
	합계	1.0	0.7	2.8	0.7	94.8	290

다. 정부나 지자체의 필요 지원 방안

○ 정부나 지자체의 필요 지원 방안

- <표 22>부터 <표 29>는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 정책에 대하여 부산지역 업체들이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응답한 것임
-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값으로 판단할 때,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필요성이 5.67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긴급경영자금 지원 필요성이 5.59 수준임. 즉,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특히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우에는 종사자 규모가 작거나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그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필요성은 4.88 수준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 연구개발역량제고 지원 필요성 4.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자금지원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 응답업체 특성별 긴급경영자금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8.6	14.3	28.6	48.6	6.17
	20~50인미만	0.0	0.0	0.0	20.0	23.3	32.2	24.4	5.61
	50~100인미만	0.0	1.1	1.1	20.0	17.8	28.9	31.1	5.66
	100~300인미만	3.0	0.0	4.5	24.2	15.2	27.3	25.8	5.33
	300인이상	0.0	0.0	0.0	33.3	38.9	16.7	11.1	5.06
	합계	0.7	0.3	1.3	20.4	19.7	28.8	28.8	5.60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0.0	15.8	10.5	26.3	47.4	6.05
	50억~100억미만	0.0	0.0	0.0	18.5	22.2	31.5	27.8	5.69
	100억~500억미만	0.7	0.7	0.7	19.5	18.8	31.5	28.2	5.62
	500억~1,000억미만	0.0	0.0	3.7	25.9	18.5	25.9	25.9	5.44
	1,000억이상	3.1	0.0	6.3	31.3	31.3	15.6	12.5	4.84
	합계	0.7	0.3	1.3	20.7	19.7	28.7	28.7	5.59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2.0	13.7	19.6	25.5	38.2	5.81
	20~40% 미만	0.0	0.0	0.0	27.6	17.2	36.2	19.0	5.47
	40~60% 미만	2.3	0.0	0.0	25.6	23.3	32.6	16.3	5.30
	60~80% 미만	2.2	0.0	2.2	20.0	22.2	22.2	31.1	5.51
	80% 이상	0.0	0.0	2.4	21.4	16.7	23.8	35.7	5.69
	합계	0.7	0.3	1.4	20.3	19.7	27.9	29.7	5.60

* 7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낸 평균값으로 7점에 가까울수록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멀어질수록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

<표 33> 응답업체 특성별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2.9	20.0	25.7	51.4	6.26
	20~50인미만	0.0	0.0	0.0	13.3	26.7	34.4	25.6	5.72
	50~100인미만	0.0	1.1	0.0	21.1	11.1	34.4	32.2	5.74
	100~300인미만	3.0	0.0	4.5	21.2	19.7	22.7	28.8	5.38
	300인이상	0.0	0.0	0.0	33.3	33.3	22.2	11.1	5.11
	합계	0.7	0.3	1.0	17.4	20.1	30.1	30.4	5.68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0.0	7.9	18.4	23.7	50.0	6.16
	50억~100억미만	0.0	0.0	0.0	11.1	27.8	33.3	27.8	5.78
	100억~500억미만	0.7	0.7	0.0	18.1	16.8	33.6	30.2	5.71
	500억~1,000억미만	0.0	0.0	3.7	22.2	22.2	25.9	25.9	5.48
	1,000억이상	3.1	0.0	6.3	34.4	21.9	18.8	15.6	4.91
	합계	0.7	0.3	1.0	17.7	20.0	30.0	30.3	5.67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2.0	6.9	20.6	31.4	38.2	5.94
	20~40% 미만	0.0	0.0	0.0	29.3	22.4	29.3	19.0	5.38
	40~60% 미만	2.3	0.0	0.0	25.6	18.6	32.6	20.9	5.40
	60~80% 미만	2.2	0.0	2.2	20.0	17.8	24.4	33.3	5.58
	80% 이상	0.0	0.0	0.0	19.0	16.7	23.8	40.5	5.86
	합계	0.7	0.3	1.0	17.9	19.7	29.0	31.4	5.68

<표 34> 응답업체 특성별 중소기업 연구개발역량제고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31.4	31.4	28.6	8.6	5.14
	20~50인미만	0.0	0.0	0.0	27.8	44.4	22.2	5.6	5.06
	50~100인미만	0.0	1.1	1.1	26.7	43.3	23.3	4.4	5.00
	100~300인미만	1.5	0.0	4.5	30.3	36.4	24.2	3.0	4.85
	300인이상	0.0	0.0	0.0	44.4	44.4	0.0	11.1	4.78
	합계	0.3	0.3	1.3	29.4	40.8	22.4	5.4	4.9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0.0	26.3	36.8	23.7	13.2	5.24
	50억~100억미만	0.0	0.0	0.0	29.6	46.3	20.4	3.7	4.98
	100억~500억미만	0.0	0.7	1.3	26.8	43.0	24.2	4.0	5.01
	500억~1,000억미만	0.0	0.0	3.7	29.6	29.6	29.6	7.4	5.07
	1,000억이상	3.1	0.0	3.1	46.9	34.4	9.4	3.1	4.50
	합계	0.3	0.3	1.3	29.7	40.7	22.3	5.3	4.98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2.0	29.4	38.2	23.5	5.9	4.99
	20~40% 미만	0.0	0.0	1.7	29.3	34.5	27.6	6.9	5.09
	40~60% 미만	0.0	0.0	0.0	30.2	46.5	18.6	4.7	4.98
	60~80% 미만	2.2	0.0	2.2	31.1	51.1	11.1	2.2	4.71
	80% 이상	0.0	0.0	0.0	28.6	35.7	28.6	7.1	5.14
	합계	0.3	0.3	1.4	29.7	40.3	22.4	5.5	4.99

<표 35> 응답업체 특성별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31.4	37.1	20.0	11.4	5.11
	20~50인미만	0.0	0.0	1.1	34.4	40.0	23.3	1.1	4.89
	50~100인미만	0.0	1.1	1.1	38.9	28.9	26.7	3.3	4.89
	100~300인미만	1.5	0.0	4.5	36.4	31.8	21.2	4.5	4.79
	300인이상	0.0	0.0	0.0	55.6	22.2	11.1	11.1	4.78
	합계	0.3	0.3	1.7	37.1	33.4	22.7	4.3	4.89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2.6	23.7	39.5	26.3	7.9	5.13
	50억~100억미만	0.0	0.0	0.0	42.6	37.0	14.8	5.6	4.83
	100억~500억미만	0.0	0.7	0.7	38.3	33.6	24.2	2.7	4.88
	500억~1,000억미만	0.0	0.0	3.7	37.0	22.2	29.6	7.4	5.00
	1,000억이상	3.1	0.0	6.3	40.6	28.1	18.8	3.1	4.59
	합계	0.3	0.3	1.7	37.3	33.3	22.7	4.3	4.88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2.9	34.3	33.3	21.6	6.9	4.92
	20~40% 미만	0.0	0.0	0.0	37.9	32.8	27.6	1.7	4.93
	40~60% 미만	0.0	0.0	2.3	48.8	30.2	14.0	4.7	4.70
	60~80% 미만	2.2	0.0	2.2	31.1	42.2	20.0	2.2	4.80
	80% 이상	0.0	0.0	0.0	40.5	21.4	33.3	4.8	5.02
	합계	0.3	0.3	1.7	37.6	32.4	23.1	4.5	4.89

<표 36> 응답업체 특성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17.1	34.3	34.3	14.3	5.46
	20~50인미만	0.0	0.0	3.3	25.6	21.1	26.7	23.3	5.41
	50~100인미만	0.0	1.1	0.0	26.7	21.1	27.8	23.3	5.44
	100~300인미만	1.5	0.0	0.0	25.8	22.7	25.8	24.2	5.42
	300인이상	0.0	0.0	5.6	16.7	33.3	33.3	11.1	5.28
	합계	0.3	0.3	1.3	24.4	23.7	28.1	21.7	5.42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2.6	23.7	34.2	26.3	13.2	5.24
	50억~100억미만	0.0	0.0	1.9	20.4	22.2	33.3	22.2	5.54
	100억~500억미만	0.0	0.7	0.7	25.5	22.1	26.8	24.2	5.46
	500억~1,000억미만	0.0	0.0	0.0	33.3	18.5	29.6	18.5	5.33
	1,000억이상	3.1	0.0	3.1	21.9	25.0	25.0	21.9	5.28
	합계	0.3	0.3	1.3	24.7	23.7	28.0	21.7	5.42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3.9	16.7	24.5	33.3	20.6	5.47
	20~40% 미만	0.0	0.0	0.0	22.4	24.1	20.7	32.8	5.64
	40~60% 미만	0.0	0.0	0.0	34.9	23.3	20.9	20.9	5.28
	60~80% 미만	2.2	0.0	0.0	28.9	17.8	37.8	13.3	5.27
	80% 이상	0.0	0.0	0.0	31.0	28.6	26.2	14.3	5.24
	합계	0.3	0.3	1.4	24.5	23.8	28.6	21.0	5.41

<표 37> 응답업체 특성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11.4	37.1	42.9	8.6	5.49
	20~50인미만	0.0	0.0	0.0	8.9	37.8	28.9	24.4	5.69
	50~100인미만	0.0	1.1	0.0	16.7	30.0	32.2	20.0	5.52
	100~300인미만	1.5	0.0	0.0	19.7	28.8	24.2	25.8	5.50
	300인이상	0.0	0.0	0.0	22.2	44.4	16.7	16.7	5.28
	합계	0.3	0.3	0.0	14.7	33.8	29.8	21.1	5.55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0.0	18.4	42.1	31.6	7.9	5.29
	50억~100억미만	0.0	0.0	0.0	9.3	25.9	46.3	18.5	5.74
	100억~500억미만	0.0	0.7	0.0	13.4	33.6	27.5	24.8	5.62
	500억~1,000억미만	0.0	0.0	0.0	22.2	40.7	18.5	18.5	5.33
	1,000억이상	3.1	0.0	0.0	21.9	31.3	18.8	25.0	5.34
	합계	0.3	0.3	0.0	15.0	33.7	29.7	21.0	5.54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0.0	10.8	39.2	28.4	20.6	5.56
	20~40% 미만	0.0	0.0	0.0	12.1	20.7	36.2	31.0	5.86
	40~60% 미만	0.0	0.0	0.0	14.0	37.2	23.3	25.6	5.60
	60~80% 미만	2.2	0.0	0.0	13.3	37.8	31.1	15.6	5.40
	80% 이상	0.0	0.0	0.0	31.0	31.0	31.0	7.1	5.14
	합계	0.3	0.3	0.0	14.8	33.8	30.0	20.7	5.54

<표 38> 응답업체 특성별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14.3	37.1	37.1	11.4	5.46
	20~50인미만	0.0	0.0	0.0	14.4	34.4	31.1	20.0	5.57
	50~100인미만	0.0	1.1	0.0	21.1	30.0	25.6	22.2	5.46
	100~300인미만	1.5	0.0	0.0	16.7	30.3	27.3	24.2	5.53
	300인이상	0.0	0.0	0.0	22.2	27.8	27.8	22.2	5.50
	합계	0.3	0.3	0.0	17.4	32.1	29.1	20.7	5.51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0.0	18.4	42.1	26.3	13.2	5.34
	50억~100억미만	0.0	0.0	0.0	13.0	35.2	35.2	16.7	5.56
	100억~500억미만	0.0	0.7	0.0	17.4	30.2	28.2	23.5	5.56
	500억~1,000억미만	0.0	0.0	0.0	29.6	25.9	25.9	18.5	5.33
	1,000억이상	3.1	0.0	0.0	15.6	28.1	28.1	25.0	5.50
	합계	0.3	0.3	0.0	17.7	32.0	29.0	20.7	5.50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0.0	12.7	33.3	31.4	21.6	5.59
	20~40% 미만	0.0	0.0	0.0	12.1	29.3	32.8	25.9	5.72
	40~60% 미만	0.0	0.0	0.0	14.0	37.2	25.6	23.3	5.58
	60~80% 미만	2.2	0.0	0.0	22.2	28.9	33.3	13.3	5.29
	80% 이상	0.0	0.0	0.0	38.1	31.0	16.7	14.3	5.07
	합계	0.3	0.3	0.0	17.9	32.1	29.0	20.3	5.49

<표 39> 응답업체 특성별 수출컨소시엄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변수	구분항목	전혀 필요없음 ←			보통 ↔		극히 필요함 →		리커트 평균
종사자 규모	20인미만	0.0	0.0	0.0	22.9	34.3	28.6	14.3	5.34
	20~50인미만	0.0	1.1	0.0	24.4	23.3	27.8	23.3	5.47
	50~100인미만	0.0	1.1	0.0	21.1	25.6	33.3	18.9	5.47
	100~300인미만	1.5	0.0	0.0	24.2	24.2	24.2	25.8	5.45
	300인이상	0.0	0.0	0.0	22.2	33.3	22.2	22.2	5.44
	합계	0.3	0.7	0.0	23.1	26.1	28.4	21.4	5.45
매출액 규모	50억미만	0.0	0.0	0.0	31.6	28.9	26.3	13.2	5.21
	50억~100억미만	0.0	1.9	0.0	16.7	27.8	31.5	22.2	5.54
	100억~500억미만	0.0	0.7	0.0	22.8	24.8	28.2	23.5	5.50
	500억~1,000억미만	0.0	0.0	0.0	33.3	22.2	33.3	11.1	5.22
	1,000억이상	3.1	0.0	0.0	18.8	28.1	21.9	28.1	5.47
	합계	0.3	0.7	0.0	23.3	26.0	28.3	21.3	5.44
수출 비중	20% 미만	0.0	1.0	0.0	18.6	27.5	31.4	21.6	5.53
	20~40% 미만	0.0	0.0	0.0	15.5	24.1	36.2	24.1	5.69
	40~60% 미만	0.0	2.3	0.0	30.2	23.3	16.3	27.9	5.35
	60~80% 미만	2.2	0.0	0.0	22.2	28.9	33.3	13.3	5.29
	80% 이상	0.0	0.0	0.0	40.5	26.2	16.7	16.7	5.10
	합계	0.3	0.7	0.0	23.4	26.2	28.3	21.0	5.43

Ⅴ. 결론 및 시사점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산지역 제조업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존재

- 먼저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
- 부산지역의 수출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무역 제재 이후 부산지역 수출의 동향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
- 아울러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수출현황 및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
-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

□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진행 현황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지고 있으며, 경제 · 군사 · 안보 ·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적자에서 기인. 미국의 전체 상품수지 적자 중에서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현재 47.7%에 달하고 있음
-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 미국은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대중 무역을 규제

-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강제 기술이전 요구 조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WTO 제소, 중국의 대미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이후 9월까지 미국은 500억 달러 수입품에 25%,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

해서는 10%의 관세 부과. 중국은 500억 달러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6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는 5%와 10%의 차등 관세 부과

○ 2019년 10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로 small deal 합의에 도달

- 미국은 10월 15일 대중 수입 2,5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상향(25%→30%)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400억~500억 달러) 및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합의
- 올해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스몰딜에 대한 합의문 서명, 추가 합의사항 발표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강제기술 이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 미중 간 무역분쟁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 양평섭 외(2019)는 미·중 간 이미 진행된 추가관세 인상조치(1~3차 조치)와 2019년 9월 이후 관세 인상조치(4차 조치 포함)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

-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4차 조치를 포함할 경우 직접효과는 1억 4,000만 달러, 간접효과는 7억 7,000만 달러로 총 효과는 9억 1,000만 달러로 추산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규모는 발효 예정조치(4차 조치 포함)를 모두 감안할 경우 직접효과는 26억 2,000만 달러, 간접효과는 16억 9,000만 달러로 총 효과는 43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 감소폭은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중국의 대미국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자동차·트레일러 및 컴퓨터· 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기계, 전기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순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분야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이외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업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미, 대중 수출감소 효과와는 달리, 무역전환 효과로 인하여 한국이 미국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존재

-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2018년 상반기 16.1%에서 2019년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동 기간 한국산은 3.4%에서 4.1%로 0.7%p 상승함.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하락과 한국산의 상승이 뚜렷함
- 미중 무역분쟁 속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타 국가산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미국(-36.9%)과 베트남(-20.2%) 수입이 가장 크게 줄었고 한국은 -5.9%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음. 중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중간재 수요 감소 및 경기둔화 영향이 무역전환 효과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임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수출 경합도와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됨.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이,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큼

□ 부산지역 수출동향

○ 부산의 수출은 연도별로 부침이 있지만, 2001년 45.7억 달러에서 2018년 144.1억 달러로 증가

- 부산의 2018년 10대 수출품목 구성은 전국의 10대 수출 품목 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HS 코드 2-digit을 기준으로 측정할 때, 부산의 품목별 비중은 차이가 나지만,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전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19.3%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3.3%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품목은 전부 제조업 제품임. 그리고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2%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의 2018년 수출의 지역별 구성은 전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수출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4.5%이고 그 다음이 중국 10.5%임. 그리고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의 수출이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미국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가 부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양평섭의 연구(2019)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대미 수출 감소폭이 대중 수출 감소폭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작을 수 있음
- 양평섭 외(2019)에 의하면, 미국의 1차~3차 관세부과 조치에 따라 전국의 대미 수출이 0.8% 감소하고 대중 수출은 0.16% 감소함. 이 비율대로 부산의 수출이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대미 수출은 28.2백만 달러, 대중 수출은 24.3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미와 대중 수출은 총 52.5백만 달러 감소로 부산 전체 수출 14,407백만 달러 대비 0.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감소율은 전국 대비 낮은 것임

○ HS 6 digit을 기준으로 볼 때, 부산의 상위 20개 품목 중에 3개를 제외한 17개 품목이 미국의 1~3차 대중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해당 품목이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라면, 대중 수출은 감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부산의 대미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에 3개를 제외한 17개 품목이 미국의 1~3차 대중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부산의 전체 수출 중 상위 20개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 수출이 변동되는 1위 품목(또는 좀 더 넓게 HS 87 품목)을 제외할 때,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부산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

정적인 영향을 더 미쳤다는 추정이 가능함

○ 부산의 대중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에 3개를 제외한 17개 품목이 미국의 1~3차 대중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품목이 자본재 또는 중간재로서 중간에서 가공되어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들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음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미 수출 상위 품목과 대중 수출 상위 품목은 20개 중에서 불과 6개 품목만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즉, 대미 주요 수출품목과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서로 구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부산의 전체 수출 중 상위 20개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부산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함. 그 이유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자본재 등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라 제3국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HS 6 digit을 기준으로 부산의 상위 500개 수출 품목을 기준으로 측정한 미국수입시장에서 부산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8년 23.4%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만을 대상으로 부산과 중국 간 수출경합도 지수를 구해보면, 그 값이 22.0%로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출경합도지수 값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 품목이 부산이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산이 가격측면에서 추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수출경합품목수 비중은 한국과 중국 간에는 2018년 42.0%로 많은 품목을 동시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부산과 한국 및 중국의 경우에도 그 비중 값이 42.3%에서 35.2%로 나타나 많은 품목을 동시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부산지역 제조업 설문조사 분석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에는 사업체 일반 현황 및 수출입 관련현황, 미중 무역분쟁의 전반적 영향, 미중 무역분쟁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정부 및 부산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부산상공회의소의 회원기업 중 제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7~8월 중 조사를 실시하여 300개사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함

○ 응답업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종사자 규모로는 20~49인과 50~99인이 각각 90개(30.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8개(6.0%)인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로는 100억~500억 미만이 149개(49.7%)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으로 보면, 20% 미만이 102개(35.2%)로 가장 많고, 20%~40% 미만이 58개(20.0%)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남. 40% 이상의 경우는 각 그룹별로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이 78개(2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차금속 제조업 39개(13.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개(9.3%), 전기장비 제조업 25개(8.3%)의 순서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부산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기계부품 장비 관련 업종이 많이 응답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음

○ 응답업체의 업종별 수출액 및 수출국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응답업체가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금액은 4조 7,2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2018년 부산 수출금액이 144억 1,000만 달러로서 원화 환산금액이 15조 8,5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응답업체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수출액이 큰 업종은 1차금속 제조업으로 1조 2,655억원(26.8%)이고, 그 다음으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052억원(17.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333억원(11.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국별 수출액을 보면, 기타 지역을 제외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조 1,354억원(2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남아 1조 570억원(22.4%), 중

국 6,638억원(14.0%), 유럽 5,710억원(12.1%)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부산지역 주요업체의 수출국별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비중과는 다소 다르게, 중국보다는 미국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음

○ 미중 무역 분쟁의 세계경제, 한국경제 및 부산경제에 대한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7개(2.3%), '부정적'은 211개(70.3%), '영향 없음'은 79개(26.3%),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개(2.7%), '부정적'은 201개(67.0%), '영향 없음'은 88개(29.3%),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개(2.7%), '부정적'은 184개(61.3%), '영향 없음'은 105개(35.0%),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은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대한 응답과 비교할 때, 조금이나마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수출품 유형에 따른 미국수출여부와 경유지 및 중국산 대비 경쟁력

- 중간재/자본재를 수출하는 업체는 152개(50.7%)인데, 이들 중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27개(1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경유지가 중국인 경우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국에 중간재/자본재를 수출하고 이 중간재/자본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중국을 경유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소비재를 수출하는 업체는 156개(52.0%)인데, 이들 중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70개(44.9%) 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소비재의 중국산 대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약함'은 2.9%, '대등함'은 12.9%에

불과한 데 비하여, ‘강함’은 67.1%, ‘매우 강함’은 17.1%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중국산 대비 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은 평균 3.99로 강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부과는 부산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부산지역 업체 수출품과 미국의 대중 관세품목과의 관련성

- 부산지역 업체들은 자사의 수출품과 미국의 대중 관세품목과의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개(4.7%), 간접적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5개(8.3%)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산지역 업체의 경우,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중국을 경유하여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비재 수출의 경우는 중국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개(1.7%), ‘부정적’은 53개(17.7%), ‘영향 없음’은 238개(79.3%), ‘긍정적’은 3개(1.0%)이고, ‘매우 긍정적’은 1개(0.3%)인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수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국가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음. 응답한 표본 수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 경우는 75% 내외, 대미국 수출의 경우는 83% 내외, 대동남아 수출의 경우는 84% 내외, 그리고 전체 수출의 경우는 78% 내외가 ‘영향 없음’으로 대답함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77.3%로 가장 많음. 그러므로 미중 무역분쟁이 매출액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에 중간재/자본재를 수출하고 이 중간재/자본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비재를 수출하는 업체의 중국산 대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부산지역 업체들은 자사의 수출품과 미국의 대중 관세품목과의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76.7%로 가장 많음. 그러므로 미중 무역분쟁이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손해 발생원인

- 미중 무역분쟁이 부산지역 업체에 손해를 미친다면 그 원인은 주로 세계경기 둔화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8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부산지역 업체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업 차원의 자체 대응현황

- 기업차원의 자체 대응을 보면 '대책없음'이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경기 둔화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차원에서는 대처할 방안이 적절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정부나 지자체의 필요 지원 방안

-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 정책의 필요성 평균값으로 판단할 때,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필요성이 5.67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긴급경영자금 지원 필요성이 5.59 수준임. 즉,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특히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우에는 종사자 규모가 작거나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그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필요성은 4.88 수준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 연구개발역량제고 지원 필요성

4.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자금지원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부산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

○ 미중 무역분쟁 이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증대로 경제에 하방압력이 심해지는 상황이지만, 부산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태

- 부산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전국과는 다소 다르게 부산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것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감소 효과도 미국시장에서의 무역전환 효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산지역 기업들은 미중 분쟁이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그리고 부산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당장 수출이나 판매액 및 이윤 등에는 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응답함
- 그 이유는 부산지역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더 집중되어 무역전환 효과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등인 것으로 판단됨
- 이로 미루어볼 때, 미중 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감소 효과는 아직 그렇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미중분쟁 등으로 인하여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부산지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

○ 부산지역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존재

- 우선 수출 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단기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첨단 신기

술 제품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IT 기술과 기술 융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할 것임

참고문헌

강지연, “「중국제조 2025」전략 - 2049년 제조업 세계 최강을 겨냥한 그랜드 플랜-”,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5. 6

김수연 외, “최근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KOTRA Global Market Report 18-022, 2018. 7

문병기 외,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9. 4

박진우 외, “미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품목 발표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리포트 Vol. 09, 2018. 6

박진우 외,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리포트 Vol. 16, 2018. 6

설송이 외,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리포트 Vol. 1, 2019. 3

신꽃비 외,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5, 2018. 9

안성배 외,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0, 2019. 8

양평섭 외, “최근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1, 2019. 9

한동균,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2017. 5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www.kita.ne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미중 통상분쟁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분쟁이 점차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물론 우리 부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미중 통상분쟁이 지역 기업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 기업에게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수집 및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부산상공회의소

※ 아래 각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O" 또는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체 일반 및 수출입 관련 현황

A1. 사 업 체 명		A2. 종사자수	(2019년 8월말 현재) ( )명
A3. 협력단계	① 모기업 ② 1차 협력업체 ③ 2차 협력업체 ④ 3차 협력업체	A4. 주요수출 1, 2위 품목 HSK code(6 digit)	1위 품목 ☐☐☐☐☐☐ 2위 품목 ☐☐☐☐☐☐
A5. 국별 수출액 (2018년 국내 수출액 기준)	미국 US_____ 천 달러 중국 US_____ 천 달러 유럽 US_____ 천 달러 동남아 US_____ 천 달러 기타 US_____ 천 달러	A6. 해외 공장 여부	없음( ), 있음 (소재국 :)
		A7.해외공장 수출여부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기타
응답자명	(직위:)	전 화 번 호	

Ⅱ. 미중 통상분쟁의 전반적 영향

Q1. 미중 통상분쟁이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가. 세계경제	①	②	③	④	⑤
나. 한국경제	①	②	③	④	⑤
다. 부산경제	①	②	③	④	⑤

Q2. 미중 통상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되어 원화강세가 대폭 이루어질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영향 없음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⑥ 잘 모름

Ⅲ. 미중 통상분쟁이 귀사에 미치는 영향

Q3. 귀사의 수출품은 주로 다음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됩니까?

① 중간재 및 자본재 ② 소비재 ③ 둘 다

Q3.1 (Q3에서 ①로 답한 경우) 완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느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① 미국 ② 한국(재수입) ③ 유럽 ④ 기타 국가 ⑤ 모름

Q3.1.1 (Q3.1에서 ①로 답한 경우) 수출품이 어느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① 중국 ② 동남아 국가 ③ 기타 국가 ④ 모름 ⑤ 직접수출

Q3.2 (Q3에서 ②로 답한 경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3.2.1 (Q3.2 질문에서 ①로 답한 경우) 귀사의 수출품은 중국산 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약함 ② 약한 편임 ③ 대등한 수준임
④ 강한 편임 ⑤ 매우 강함

Q4. 현재 귀사의 수출품은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품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① 직접적 관계있음 ② 간접적 관계있음 ③ 관계없음 ④ 모름

Q5. 미중 통상분쟁이 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② 올해 안 ③ 미국 대선 전
④ 5년 내 ⑤ 5년 이후 ⑥ 잘 모름

Q6. 미중 통상분쟁은 귀사의 수출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영향 없음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Q7.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하여 귀사의 아래 국가별 수출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넣어 주십시오.

대중국 수출	( )	대미국 수출	( )
대동남아 수출	( )	전체 수출	( )

① 30%이상 감소 ② 20~30% 감소 ③ 10~20% 감소
④ 0~10% 감소 ⑤ 영향 없음 ⑥ 0~10% 증가
⑦ 10~20% 증가 ⑧ 20~30% 증가 ⑨ 30% 이상 증가

Q8.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하여 귀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넣어 주십시오.

매출액	( )	영업이익	( )

① 30%이상 감소 ② 20~30% 감소 ③ 10~20% 감소
④ 0~10% 감소 ⑤ 영향 없음 ⑥ 0~10% 증가
⑦ 10~20% 증가 ⑧ 20~30% 증가 ⑨ 30% 이상 증가

Q9.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하여 귀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주로 어디에서 기인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국내의 대중국 수출 감소 ② 중국 현지법인의 대미 수출 감소
③ 생산공장 이전비용 발생 ④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
⑤ 모름

Q10. 미중 통상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귀사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대책 하나만 답하여 주십시오.

① 대중 수출품 가격 인하 ② 중국수출 비중 축소
③ 중국 이외 생산 시설 이전 ④ 대미 직접 수출 증대
⑤ 제 3국 시장 개척 ⑥ 국내 투자 및 고용 축소
⑦ 대책 없음

Q10.1 (Q10에서 ③으로 답한 경우) 어느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계획입니까?

① 베트남 ② 인도네시아 ③ 태국 ④ 기타 동남아 국가
⑤ 중남미 ⑥ 미국 ⑦ 기타 국가

Q10.2 (Q10에서 ⑤로 답한 경우) 어느 국가의 시장을 주로 개척할 계획입니까?

① 유럽 ② 일본 ③ 동남아시아 ④ 중동 ⑤ 기타 국가

Q11. Q10에서 언급한 대책은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① 현재 시행 중 ② 3개월 이내 ③ 1년 이내
④ 2~3년 이내 ⑤ 3년 이후 ⑥ 계획 없음

Ⅳ. 정부 및 부산시의 지원

Q12.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정부나 부산시가 보다 강력하게 지원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영역	세부사업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①-------②-------③------④------⑤------⑥------⑦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①-------②-------③------④------⑤------⑥------⑦
기술지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①-------②-------③------④------⑤------⑥------⑦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①-------②-------③------④------⑤------⑥------⑦
수출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①-------②-------③------④------⑤------⑥------⑦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①-------②-------③------④------⑤------⑥------⑦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①-------②-------③------④------⑤------⑥------⑦
	수출 컨소시엄사업	①-------②-------③------④------⑤------⑥------⑦